

보도시점

2023. 8. 22.(화) 09:30

배포

2023. 8. 22.(화) 09:30

농어촌公社, '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' 최우수상 수상

-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개념 정립부터 지역 특수성 반영한 품질향상 공로 인정-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「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」에서 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.

올해 16회를 맞은 「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」은 공공디자인의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사업·연구·지자체(시설)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.

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사는 ‘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삶 프로젝트’를 통해 최초로 농산어촌에 특화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디자인 품질개선 및 확대·전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.

공사는 ‘20년 도시 중심의 공공디자인에서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정립 및 ‘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’* 제작을 시작으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총괄부서로서 KRC공공디자인 제도 운영, 순회 교육·컨설팅 추진 등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.

* **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:** 농산어촌지역에 특화된 설계·시공사례를 제시하고 시설물 적정면적, 예상공사비 등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한 자료

'20년 총론 및 설계편 → '21년 시공편 제작 → '23년 설계심화편 제작



은 농어촌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."며 "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삶터, 일터, 쉼터가 함께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개발·지원에 힘쓰겠다."전했다.

담당 부서	농촌공간개발처	책임자	부 장 최찬원 (061-338-5441)
	농촌공간디자인부	담당자	대 리 최유리 (061-338-5450)

이병호 사장은 "농어촌 인구감소와 생활서비스 공급 감소 그리고 난개발